

다산포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본주의 비판



송재소
성공관대 명예교수

작년 3월에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최근 행보가 세인을 놀라게 하고 감탄시키고 있다. 그는 12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답지 않게 서민적인 풍모를 뽐낸 공이다. 방탄시설을 갖춘 전용 고급 승용차 대신 준중형 중고차를 직접 운전한다. 방 10개에 테라스가 딸린 속소를 사양하고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며 일반 사제들과 공동으로 식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 여성의 발을 씻기고 입맞추기도 한다. 자신의 생일이 노숙자 세 명과 함께 미사를 올리고, 아침식사를 했다는 등의 일화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또한 아르헨티나 출신답게 탱고의 역사, 탱고 가수의 이름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탱고를 좋아한다. 축구도 광적이거나 서민적인 교황인 셈이다. 이렇게 교황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려는 그의 자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假飾的)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다. 교황의 이러한 친서민적인 풍모의 이면에는 날카로운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교황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현대에 맞게 고쳐 말하면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 말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체제에서 자유인 곧 신(神)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의 추구를 최고의 선(善)으로 여기게 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착취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교황은 ‘아만적 자본주의’라 부른다. ‘돈이 왕 행세를 하는 정의롭지 못한 국제 시스템 속에서’ 빈부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인간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는 말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높고 집없는 사람이 노숙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추가자수가 2%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 그야말로 ‘아만적’이다. 교황은 특히 금융자본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통제받지 않는 자유 방임시장을 통한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교황의 생각이다. 그는 금융자본주의를 ‘새로운 우상’이라 지목하고 이렇게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를 ‘새로운 독재’로 규정한다. 이 금융자본가들은 초기의 산업자본가처럼 직접적으로 노동착취를 하지 않지만, 투기성 단기자본의 운용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일거에 마비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은행을 매입했다가 되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 달아난 다국적 기업 론스타의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교황은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라 말하지 않고, 가난을 만드는 사회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기부의 문화가 아닌 노동의 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장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의 이 말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등 그가 ‘새로운 우상’이라 지목한 금융자본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금융 투기로 천문학적 돈을 모은 뒤 한결같이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다. 워런 버핏은 전 재산의 85%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적이고도 가혹한 ‘기부’로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교황의 판단인 듯하다. 수많은 자선과 기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이다. 교황의 말대로 ‘버려진 임여가 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길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비판에 담긴 교황의 참뜻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양동욱의 S 스토리

만족 지연 능력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출생 후 영아는 배가 고프면 울음을 통해 먹을 것을 얻고, 배설하고 싶을 때면 방설임 없이 기저귀에 싸고, 자고 싶을 때 침얼거리며 언제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생리적 본능에 충실한 존재이다. 풀 무렵, 걸음마를 하고 한두 마디의 짧은 단어를 이해하고 말하게 되면서 영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리 및 사회적 욕구를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영아의 천진난만한 본능에 제동을 거는 부모의 요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배변 훈련’이다. 돌이 지난 자녀를 둔 부모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는 ‘내 아이가 언제쯤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을까’이다. 아이의 배변 기저귀를 갈 때 가족들이 코를 막으며 도망치듯 피하고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기저귀 갈기에 협조하지 않는 아이의 엉덩짝을 철썩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부모는 아이에게 배변 전쟁을 선포한다. 부모는 자그마한 배변기를 사서 아이에게 보여주며 이제부터 ‘쉬’나 ‘응가’가 마려우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며 기저귀가 아닌 이 기구에 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 아이가 배변의 충동을 ‘응가’로 표현하면 부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만’이라는 주문과 함께 아이의 배변기를 내려 배변기에 앉힌다. 이때 아이는 배변기에 앉기까지 몇 초 사이에 항문의 괄약근을 꼭 조여 배변 충동을 참아야 한다. 그리고 준비가 끝난 이후 참았던 배변을 방출하면서 시원한 만족감과 함께 부모의 칭찬을 얻게 된다.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만족 지연(delay of gratification)’이라고 한다.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아이의 본능적 욕구와 아이의 신체적 성숙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배변 훈련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아이는 배설의 충동을 통제하면서 만족 지연이 자신뿐만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더 큰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현실의 원리를 배워 나간다. 더 나아가 아이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요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욕구 충동을 현실에 맞게 타협하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네 살 배기 꼬마들을 데리고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아주 간단했다. 부모와 함께 초대된 아이들은 작은 방에 선택권(연구자)과 단둘이 남았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이 나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잠시 나

갔다 올 거야.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네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선생님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그럼 넌 두 개를 얻는 셈이지.” 아이가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십여 분까지 다양하게 조작됐다. 선생님이 방을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네 살짜리 아이에게 좋아하는 과자를 앞에 두고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추위에 오돌들 때 어른에게 따뜻한 음료를 두 시간 후에 가져다주겠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예컨할 수 있듯이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었다. 선생님이 방을 나가자마자 세 명 중 두 명은 곧바로 과자를 골짜했다. 어떤 아이는 참을 만큼 참다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과자를 먹어버렸다. 흥미로운 것은 세 명 중 한 명꼴로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더라는 것이다. 과자를 코에 대고 냄새를 끄공거리며 과자의 맛을 상상하던 아이, 과자의 유혹을 떨쳐버리려 뒤돌아 앉은 아이, 과자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과자를 먹고 싶은 충동적인 욕구를 참아내어 과자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내 살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실험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15년이 흐른 후 성년기에 접어

든 이들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만족 지연에 성공했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곧바로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발표된 후, 만족 지연 능력이 지니고 있는 성공의 힘에 관해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졌다. 청소년의 성을 이야기할 때 필자는 만족 지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청소년들이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기중심적인 만족을 얻고자 성을 가감 없이 표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성적 만족을 일정 기간 지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은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녹색 신호에 길을 건너는 것은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녹색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무단 횡단을 해서 빨리 건너고 또 무단 횡단을 해도 무탈하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행동이 반복될수록 사고의 위험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건널목 앞에서 안전을 위해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건강하고 책임감 있게 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社說

AI 감염원 철새로 확인, 방역체계 수정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 최초 발생지인 전북 고창 씨오리농장 인근 동림저수지에서 야생오리떼가 폐사한 요인이 AI 감염원으로 확인돼 전국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는 20일 집단 폐사한 야생오리(가창오리) 사체를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고창 오리농장에서 감염된 것과 같은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야생오리의 AI 감염은 철새의 이동 경로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한다는 점에서 전남으로선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전남에는 철새도래지가 해남 고천암과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 영암호, 대동저수지 등 6곳에 이르고, 수천만 마리의 철새가 찾고 있다. 철새는 이동 범위가 넓고, 감염원인 분비물을 아무 곳이나 떨어뜨려 인력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방역망이 확대되면서 AI가 파고들 틈이 넓어진 것이다. 또한 AI의 잠복기가 길게는 21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대비책 마련

도 여의치 않다. 30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도 걱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방역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현재 AI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포위망’식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제부터 철새 비행경로의 모든 지역을 감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예찰과 동시에 가금류 농가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설 연휴 인구 대이동 전에 AI가 진정될 수 있도록 총력 방제를 펼쳐야 한다. 정부, 지자체는 3년 전 예방과 방역에 실기(失機)하면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철새가 감염원으로 밝혀진 이상 철새 분변 등 위험요인을 가급 농장과 차단하는 것이 AI 방역의 핵심이다. 아울러 AI에 대한 막대한 공포심을 키워 소비까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전남 독감 비상 예방책이 우선이다

광주·전남지역에 독감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의심환자 발생빈도가 광주는 1위, 전남은 2위라고 하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유행 기준을 훨씬 웃도는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 2014년도 제1주차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현황을 보면, 외래환자 1000명 당 ▲광주 37.2명 ▲전남 30.5명 ▲서울 28.0명 ▲경기 24.2명 ▲인천 18.2명 등 광주·전남과 수도권 지역이 매우 높고, 부산·전북·제주·충남은 10여 명 수준이며, ▲경남 7.4명 ▲강원 5.6명 ▲대전 3명 등에 불과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의심환자수가 12.1의 3배에 달하고, 지역별로 비교해도 대전, 강원, 경남보다 최고 5~10배 이상 환자 수가 많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예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독감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공

기보다는 주로 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튼튼 할 때다!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침, 재채기 할 때 입을 가리는 에티켓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넘기지 말고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독감이 가장 취약한 영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은 예방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 전염병은 초기대응이 절대적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파동에서 여실히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의 즉각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독감이 더 확산되기 전에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감염상태를 세심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백신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손 소독제 등도 충분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유행병이라도 가볍게 여길 일은 절대 아니다.

無等鼓

그녀의 클래식 듀오 공연 ‘카페 뮤지카’ 안내 리플렛에는 ‘짐머만 커피하우스의 정신으로(in the sprit of Zimmermann Coffeehouse)’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짐머만 커피하우스는 음악가 바흐(1685~1750)와 인연이 깊다. 바흐는 이 카페에서 신작을 발표하고 음악인들과 어울리며 연주활동을 펼쳤다. 짐머만에서는 600회 이상 공연이 열렸다고 한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 원전연주(原典演)를 소개한 광주 출신 바흐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연주회에 다녀왔다. 사실, 이날 연주회는 정식 공연은 아니었다. 다음날 서울 한 카페에서 공연을 앞둔 김씨가 지인(인터뷰 기사)에게 바흐의 사가 공개할 인연도 찾았다고들 위해 드레스 리허설을 오픈한 행사였다. 장소는 담양리조트 커피숍. 탁자에는 촛불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격식 없이 의자에 자유롭게 앉아 음악을 들었다. 1656년 산(産) 바흐 바이올린과 16~18세기 전성기를 누렸던 첼발로

(하프시코드)가 들려주는 코렐리와 바흐의 음악은 인상적이었다. 당대의 악기로 당대의 음악을 들으니, 지금 이곳이 바흐가 활동했던 바로크 시절의 어느 카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앙코르곡으로 ‘G선상의 아리아’와 ‘하프시코드협주곡’ 2악장 ‘라르고’를 피아노가 아닌, 첼발로와 바흐로 들을 땀 땀은이라 생각했다. 김씨는 짐머만 카페 같은 공간에서 살롱음악회를 많이 열고 싶다고 했다. 관객들과 호흡하며 가까이서 감동을 나누고 교감하는 그런 연주회를 꿈꾼다고 했다. 요즘 카페 등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클래식 연주도 좋고, 재즈·대중음악 공연도 좋다. 연극, 낭독회, 인문학 강좌 등은 또 어떤가. 파리의 카페 ‘플로르’는 사르트로와 보보르가 실패 드레스 리허설을 오픈한 행사였다. 장소는 담양리조트 커피숍. 탁자에는 촛불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격식 없이 의자에 자유롭게 앉아 음악을 들었다. 1656년 산(産) 바흐 바이올린과 16~18세기 전성기를 누렸던 첼발로

바흐와 카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지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100세 시대 건강관리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하라



신인식
전북 장수군의회 사무과장

가방 메고 학교 다닌다고 누구나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 잘하려면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시절은 누구나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똑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중요해서 똑같이 교육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서, 힘들고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는 과의까지 하여 성공의 길로 진입한다. 이와 같이 건강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노력의 중요함을 알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없는 시간을 활용해 건강 과외의 수

영, 볼링, 승마, 요가, 배드민턴, 골프, 헬스, 조깅 등 자기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 몸 건강이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다. 또 내가 몸에 병이 나면 나하고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들이 또는 부모형제가 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건강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건강은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더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 또는 부모가 어떻게 해결해 주거나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습관화된 식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 아니다. 소식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포만감이 있어야 잘 먹었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생각해 보자. 소고기 등심, 푸짐한 소고기 육회, 삼겹살, 오리 훈제, 한방오리야랑, 영양 만점 민물 장어구이 등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건강 메뉴라고 생각한다. 점이 저절로 넘어가지 않는가? 여기에 소주는 필수적이

라고 생각했던 나다. 이것을 1인분이 아닌 2~3인분은 먹어야 포만감이 더해져 더 잘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소주도 몇 병씩 먹으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고 주위 사람에게서도 권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한다. 맛있는 고기안주에 술도 잘 먹고 배가 풍선처럼 나와 있는 비만이 인격이며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비만 뇌경색, 본태성 고혈압이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술의 경우 간의 해독 능력을 고려해 남자는 하루에 알코올 40g, 여자는 20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지난해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권장 섭취량보다 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술을 잘 마시는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 나와 비슷한 선배님들을 보자. 젊은 시절 이런 몸을 지탱하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데에는 지장 없던 사람들도 혈압약이 나 당뇨약과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약을 복용하면서도 자기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신체마비가 나타나 고생하거나 바깥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울렁이처럼 배도 좀 나오고 아직 썩진 모습의 연세 지긋한 중년이 건강하고 보기에 좋다고 했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영양 과잉공급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느긋한 성질에 게으르고 자기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바라본다. 그렇기에 시대에 따라 건강을 보는 시각도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그쪽 분야의 사업 또한 번창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건강기능성 식품과 효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당히 먹고, 먹는 것만큼 운동하며, 숙면하고, 쾌변을 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장수시대에 살면서 건강을 잃은 채 목숨만 부지한 채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건강관리는 일찍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평생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자기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낫다’는 말을 새겨보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